

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본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배 포 일		2019. 9. 20. / (총 7매)		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	과 장	정 영 기	전 화	044-202-2820
	사 무 관	전 가 은		044-202-2822
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·담배관리T/F (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)	과 장	박 영 민	전 화	043-719-1745
	연 구 관	박 성 관		043-719-1736
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	과 장	오 경 원	전 화	043-719-7460
	연 구 관	김 연 정		043-719-7461

## 보건복지부,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

-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·사망8건 발생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,
  - 2019년 9월 20일(금) 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 전문위원회(위원장 문창진)」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  - 현재,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“중증 폐 질환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,
  - 특히,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

지난 9월 11일 “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”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
-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, 국내 점검(모니터링)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첫째,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,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.
  - 또한,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하였다.

<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>

- 대부분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 호소
- 일부는 소화기계통(메스꺼움, 구토, 설사) 및 기타 증상(피로감, 발열, 체중감소) 보고
-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, 심장박동수 증가,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

- 둘째,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,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  -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“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”와 “건강보험 자료(병의원 진료자료)”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.
  - 한편, 병원/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.

- 또한,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·검토할 계획이다
- 셋째,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“THC”, “비타민 E 아세테이트”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.
  - \* THC(tetrahydrocannabinol) :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
- “THC” 및 “비타민 E 아세테이트”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,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.
- 넷째, 담배제품(담배, 흡연전용기구 등)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,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.
- 다섯째,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여섯째,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면밀한 상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·전문가로 구성된 “상황 대응반”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“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”, “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”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-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“젊은층을 중심으로 껴련형 전자담배,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”고 전했다.
- 또한 “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,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별첨>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조치동향 및 국내 권고사항(안)

<붙임 1>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의 조치배경 및 내용

<붙임 2>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발생 주요 경과

## 붙임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의 조치배경 및 내용

□ (조치배경)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 내 중증 폐질환 및 사망 사례 발생 및 청소년의 가향 전자담배 사용 증가

○ 총 의심사례 건수 : 약 530건(38개 주 및 1개 해외령)

- CDC 판별 기준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또는 급성 폐 질환이 확실(Confirmed) 또는 높은 확률로 의심되는(Probable) 사례

### < 중증 폐 질환 사례에 대한 성별 및 연령 현황 >

○ 약 72%가 남성

○ 67%가 18 ~ 34세에 해당하며 18세 미만은 16%, 35세 이상은 17%

- 단,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필요

○ 사망사례 : 8건(미주리, 캘리포니아(2), 일리노이, 인디애나, 캔자스, 미네소타, 오리곤)

○ 주요 증상

- 대부분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, 가슴통증)을 호소하며 일부는 소화기계통(메스꺼움, 구토, 설사) 및 기타 증상(피로감, 발열, 체중감소) 보고

-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중증 폐 질환으로 추정되나 발열, 심장 박동수 증가, 백혈구 수치 증가가 보고됨

□ 조치내용

① 폐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중이며,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등 권고

- (CDC)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, 사례 판별을 위한 기준 및 데이터 수집, 대국민·주정부·의료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등

<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과 폐 질환 관련 CDC 권고사항 >

- 일반인 : 정확한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또는 중단 권고
- 의료종사자 : 의심사례 발견 시 환자 대상 기초정보 수집 및 주정부에 신고

- (FDA) Forensic Chemistry Center에서 의심사례 관련 제품(액상, 기기장치 등) 샘플의 성분 및 독성 등 조사
- 대부분 대마 유래 성분(THC)\*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으나, 명확하게 원인 제품 또는 성분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
  - \* THC(tetrahydrocannabinol) :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
- THC 관련 제품 분석 결과, 대부분의 샘플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확인하였으나, 아직 폐질환의 원인으로 규명된 단계는 아님

② “가향 전자담배” 판매 금지 계획 발표(’19.9.11.)

-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'20.5월까지 판매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 의무, 미제출 또는 판매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판매 불가
- FDA 허가 전까지는 “담배향 및 멘솔향 전자담배” 만 판매 허용
  - \* '19년 미국 청소년 27.5%가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자, 고등학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일향 사용자 66%, 멘솔향 사용자 64%(중복응답)

## 붙임 2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발생 주요 경과

- (8.2.) 위스콘신 주, 전자담배 사용 후 중증 폐 질환으로 입원한 사례 발표
  - 위스콘신 주 보건당국은 전자담배 사용 후 중증 폐 질환으로 입원한 십대 및 젊은 연령대 사례 11건이 접수되어 조사 중임을 발표
  - CDC는 Clinician Outreach and Communication Activity를 통해 의사들에게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질환 의심 사례를 주 정부 또는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
- (8.17.) CDC, 5개 주정부\*에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된 폐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발표 \*위스콘신, 일리노이, 캘리포니아, 인디애나, 미네소타
  - CDC 접수 의심사례 : 14개 주, 94건(19.6.28. ~ 8.15.)
- (8.21.) CDC,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 폐 질환 발병 조사 관련 FDA 및 주 정부와의 조사 착수 경과 및 현황 발표
  - CDC 접수 의심사례 : 22개주, 193건(19.6.28. ~ 8.20.)
- (8.23.) 일리노이 주 정부, 의심사례 환자 사망 발표
  - CDC 1차 언론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방 차원 대응 발표
- (8.30.) CDC-FDA 공동 보도자료 발표, 주정부 및 의료계 협조 당부
  - CDC 접수 의심사례 : 25개주, 215건, 사망 1인(19.6.28. ~ 8.27.)
  - CDC Health Alert Network(HAN)를 통해 의료계 및 주정부 권고사항 배포
- (9.6.) CDC 2차 언론브리핑 및 조사결과 중간보고 보도자료 배포
  - CDC 접수 의심사례 : 33개주 및 1개 해외령, 450건, 사망 5인(19.6.28. ~ 9.6.)
- (9.9.) 미국의학협회(AMA), 전자담배 사용 자제 및 규제 촉구 성명서 발표
- (9.11.) 6번째 사망자 발표
- (9.12.) CDC 검증 결과 의심사례 380건으로 수정
  - CDC 사례 판별 기준을 통해 확실(Confirmed)/잠정(Probable) 사례 확정·발표
- (9.16.) CDC 긴급상황실(Emergency Operations Center)을 통한 대응 시작
- (9.17.) 7번째 사망자 확인
- (9.19.) CDC 확인 사례 530건으로 수정, 8번째 사망자 확인